

4호

Issue & Review
on Democracy

우익 포퓰리즘 (Right wing Populism)의 전 세계적 확산

: 배경과 의미

박근영

한국민주주의연구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Institute for Korean Democracy

우익 포퓰리즘 (Right wing Populism)의 전 세계적 확산

박근영

한국민주주의연구소

01

들어가며

● 불신과 혐오의 시대

한 설문조사기관이 8월 3일 발표한 전국 만 13~59세 남녀 2500명을 대상으로 ‘정치·경제·사회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75.5%가 “현재 우리가 처해있는 정치현실은 전반적으로 불만족스럽다”고 대답했다.¹ 이는 과거 IMF 직후인 2001년 같은 조사 결과인 74.1%보다 1.4% 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설문조사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우리 사회는 불신이 팽배해져 가고 있고, 이러한 불신을 기반으로 한 발 더 나가 혐오의 시대로, 정치혐오, 여성혐오, 외국인 노동자 혐오 등 혐오를 바탕으로 한 범죄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온라인 상으로도 “일베”, “메갈리아” 등 편향적이고 극단적인 집단이 등장하면서, 그 혐오가 인터넷 환경에 익숙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급속도로 빠르게 확산되어 가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혐오의 시대에 빠져 버린 한국의 현재의 모습은 비단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도 유사한 사회적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 일본의 경우 아베정권의 우익적 행보를 바탕으로 “혐한” 물결과, 일명 “넷우익”이라 불리는 집단의 등장, 미국의 경우 공화당 대선후보로 선출된 트럼프 현상이나, 영국의 EU탈퇴(브렉시트)로 대변되는 유럽에서 불고 있는 극우정당의 영향력 확대 등이 그러한 예이다.

● 글로벌화가 만들어 낸 근대화의 패자와 우익 포퓰리즘

이러한 현상 속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특징을 살펴보면, 일부 연구자들이 지칭하는 “근대화의 패자”로 지칭되는 집단과 그들이 주장하는 이데올로기의 등장이 바로 그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주로 남성으로, 비숙련노동에 종사하며, 직업이동이 쉽지 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혐오를 바탕으로 한 극단적인 가치관, 일명 우익 포퓰리즘(Right-Wing Populism)의 등장과 그 지지기반의 확산을 의미

한다. 글로벌화와 탈공업화로 대표되는 장기적인 사회구조의 변화뿐 만 아니라 경제에서 차지하는 공적 영역의 역할의 저하, 채용, 노동규제 등의 의해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 역시 공통적인 특징으로 있다. 즉 정보통신산업이 빠르게 발전하고 세계화가 일상화된 지금 세계는 거꾸로 국가와 민족을 강조하는 우익 포퓰리즘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유럽과 미국을 비롯하여 세계 여러 나라의 우익 포퓰리즘은 정치적 역사, 시스템 그리고 문화와 같은 국가별 특정 요소들에 따라 상이한 형태를 띠지만 유사한 점도 많다. 포퓰리즘의 핵심적이고 지속적인 주장은 부패한 정치적 계급, 엘리트, 기득권에 대항하는 우익정당의 법안, 혹은 우익집단의 주장 그 자체가 단 하나의 진짜 보통 사람들의 목소리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다문화 세계화의 수혜자와 그에 반해 소외되고 있다고 느끼는 노동자계층의 민족중심적 국가주의자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분열은 전 세계적으로 악화되어 가고 있다. 한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포퓰리즘은 진보진영의 이데올로기를 우익진영에서 비판할 때 수사학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그러나 현재 사회적 현상을 보면 한국도 서구의 흐름과 마찬가지로 국가와 민족을 강조하며 엘리트와 기득권에 반대하는 우익 포퓰리즘이 이미 존재하고 있음은 부인 할 수 없는 사실일 것이다.

02

우익 포퓰리즘(Right wing Populism)의
의미와 특성

● 우익 포퓰리즘의 의미

자유방임주의적 자유주의를 기반으로 기존의 정치적 합의를 거절하고 자유방임주의적 자유주의 (laissez-faire liberalism)와 반 엘리트주의(anti-elitism)가 결합된 정치 사상이다.¹⁾ 특히 엘리트에 반대하여 “보통 사람들(the people)”에게 호소하기 때문에 포퓰리즘(대중주의, populism)라고 불리는 측면이 있다. 대개 서구에서의 경우 우익 포퓰리즘을 표현할 때는 이민, 이슬람권, EU통합등에 반대하는 것으로 잘 알려진 정당이나 집단을 설명할 때 주로 사용되는 표현이기도 하다. 일본을 비롯한 한국의 경우는 북한, 외국인 노동자, 여성 등에 대해 부정적이고 왜곡된 시각을 가지고 있는 집단으로 나타난다. 사실 전통적인 우익의 시각은 주로 자유주의적인 가치관에 입각하여 사회보장제도의 확대가 좌파 포퓰리즘에 의해 형성되었다고 판단하고, 복지국가로의 확산에 반대하는 시각을 가졌었다. 그러나 우익 포퓰리즘은 국가와 민족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국가에 초점을 맞추어 일종의 복지 소비니즘(Welfare chauvinism) 이라고 불리기도 한다.¹⁾

● 우익 포퓰리즘의 특성

우익 포퓰리즘은 문화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동일한 민족이라는 점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우익 포퓰리스트(Right-wing Populist)들은 민족의 정체성과 공통의 이익을 우선한다. 이민자와 같은 대개 소수자의 이익과 정체성에 대해 보호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정치인들을 부패한 엘리트들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우익 포퓰리스트들은 전략적으로 부정적인 정치적 커뮤니케이션을 활용한다. 그들은 계산된 도발과 스캔들과 금기된 것들을 파괴하는 형식으로 활동을 벌이며 이를 통해 지지기반을 확대해간다.

사실 포퓰리즘의 이데올로기는 기회주의적으로 사회 어디에서나 자유자재로 존

1) Welfare chauvinism (복지 소비니즘) : 복지혜택은 반드시 특정한 그룹, 특히 한 국가에 거주하는 이민자가 아닌 원래 그 국가의 민족에게만 제한되어야 한다는 정치학적 개념으로 사용되어지는 용어이다. 이 용어는 주로 우익 포퓰리즘 정당에 의해 특히 본질적으로는 이민자뿐 만 아니라 실업자, 복지혜택자들과 같은 다른 사회적 그룹과 복지국가의 문제 속에서 수사학적인 관련성을 주로 설명할 때 사용되어진다. 핵심은 두 가지 그 국가에 거주하고 있는 거주자들을 극단적으로 두 그룹으로 분류하는 것이다. “국가에 자양분이 되는 (nourishing) 과 “국가를 쇠약하게 만드는 (debilitating)” 사회의 부족한 자원을 두고 벌이는 경쟁 속에서 그들 사이의 모순을 (Mény, Yves; Surel, Yves (2002), Democracies and the Populist Challenge, Basingstoke: Palgrave)

재한다. 선거에서의 승리를 목표로 해서 각 나라의 역사적, 정치적 맥락에 맞게 형성되어 대중의 여러 가지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이것을 이데올로기로 포함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포퓰리즘으로 간주한다. 이에 따라 다양한 이데올로기적 여러 요소가 통합되어있기 때문에 포퓰리즘은 역동성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여러 종류의 다양한 이익과 요구가 포퓰리즘에 동원되고, 이것은 기존의 정치경제 시스템에 반대하기 위한 이론으로 수렴되기 때문이다.

특히 이 우익 포퓰리즘의 확산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유럽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활동이나 운동에 한정하여 생각해보면, 그 기본적인 성격은 복지국가를 지지하는 정치경제시스템에 적대적인 운동이라고 하는 점을 들 수 있다. 복지국가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신자유주의적인 이데올로기를 그 근본으로 하면서 무엇보다 포퓰리즘에 기반하여 우익적인 성격, 즉 국가와 민족을 강조하는 점이 또 하나의 특징으로 혼재되어 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포퓰리즘적 요소라 하면 포퓰리즘의 핵심적인 성격, 즉 대중의 의지(이익)을 정치적 정당화의 궁극적 근거로 보는 사상으로부터 파생한 이데올로기적 요소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기존의 정당이나 이익단체가 형성한 기득권 시스템의 파괴를 목적으로 반 기성정당, 반 이익단체, 반 엘리트주의, 리더를 중시하고 국민투표 등을 중시한다. 이를 좀 더 구체화하면, 이민반대, 법과 질서의 중시, 정체성(Identity)의 중시, 반 글로벌화, 반 EU의 입장 등 국가 및 민족중심주의적인 이익과 법질서의 중시 등을 의미하는 것이다.

포퓰리즘은 이데올로기이고, 전략적으로 조직된 프레임이기도 하고, 수사학적으로 서술된 일종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느 특정 이념에게만 붙일 수 있는 단어가 아니다. 좌익 포퓰리즘은 경제적 공정성 혹은 평등을 확장시키는 것에 주목하는 반면, 우익 포퓰리즘은 타인을 향한 편견, 공격, 왜곡, 체제전복에 대한 음모, 반역에 대한 공포 등에 주로 주목한다.

03

미국의 우익 포퓰리즘과 트럼프 현상

● “반 워싱턴” 풀뿌리 운동의 등장

2016년 예비선거를 휩쓴 있는 미국의 우익 포퓰리즘 돌풍을 불러 일으킨 원인을 찾아보면 그것은 2000년대에 발생한 “반 워싱턴”을 기치로 한 풀뿌리 운동 2가지를 들 수 있다. “반 워싱턴”의 핵심은 기존의 기득권층, 정계를 지배하고 있는 엘리트들에 대한 반대이다. 2009년에 발생한 티파티(Tea Party)운동과 하나는 2011년에 일어난 월가점거(Occupy Wall Street, OWS) 운동이 바로 그것이다. 세금을 사용한 금융기관의 구제나 국민보장보험제도실현을 위한 개혁 등에 반발한 보수운동으로서 급격히 대두된 티파티 운동은 2010년 중간선거에서 다수의 공화당 신진 의원을 당선시키는 바람을 불러일으켰다. 월가 점거 운동은 2008년 리먼 쇼크(Lehman shock)의 발생 이후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불황으로 특히 19세에서 20대 초반의 젊은이들이 대량 실업 사태에 빠지게 되고,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 하지 못했던 정부에 대한 미국 중산층의 불만이 이 시위 확산에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

● 2016년 공화당 대통령후보 트럼프 열풍

이러한 과정을 통해 2016년 공화당 대통령후보 선거에서 등장한 트럼프 열풍은 미국의 우익 포퓰리즘이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었다. 미국 우익 포퓰리즘의 가장 큰 특징은 “반 워싱턴”에 있다. 앞서서도 언급한 티파티 운동이나 월가점거운동은 기존의 기득권, 혹은 지배층, 엘리트로 대변되는 워싱턴 정가에 대한 반발로서 발발한 “반 엘리트” 운동이다. 상위 1%가 전체 99%보다 절대 다수의 부를 차지하고, 이로 인하여 사회적 양극화는 심화되어 가고, 경제 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미국 사회의 지배층, 즉 엘리트들을 향한 사람들의 반발은 트럼프라는 열풍을 만드는 데 일조하게 되었다. 트럼프는 예비선거에 입후보 하자마자 반 무슬림

(Muslim), 인종 차별, 멕시코 이민, 여성, 장애인 등 사회의 소수자들에 대해 배타적이고 차별적인 언급을 서슴지 않았다. 또한 파시즘을 주도했던 이탈리아의 독재자 베니토 무솔리니(Benito Mussolini)의 글귀를 리트윗하거나, KKK(백인 우월주의단체)와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인 수용을 지지하는 듯한 언동을 취하며 지속적으로 물의를 빚어왔다.

트럼프의 특징은 위에서 언급한 차별적이고 선동적인 주장을 대중영합적으로 이용하여 지지자들의 감정을 흔드는 수법을 활용한다는 것이다. 트럼프의 집회에서는 정치적 차별발언과 금기를 거리낌없이 발언하는 트럼프와 그에 선동된 지지자와 반발하는 시위자간 사이에서 격렬한 감정적 충돌과 폭력사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뉴욕타임즈(The New York Times)의 조사에 따르면 트럼프는 고졸 이하의 백인, 농업 및 건설 등 제조업 등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사람들, 그리고 트레일

러 하우스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른바 백인 하위 중하층으로 총칭되는 사람들이 트럼프의 핵심적인 지지층으로 여겨졌다.^Ⅲ 위의 분석과 유사하게 아래의 표를 통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트럼프 지지자들은 여성보다는 남성이, 백인의 40대 이상인, 학위가 없으며, 공화당 지지자이면서 보수적인 정치 성향의 사람들에게 더 지지를 받고 있음이 나타났다.

트럼프의 선거 슬로건은 “Make America Great Again”에 대한 약속이다. 이러한 정의가 그의 여러 가지 공약들을 잘 표현하고 있는지는 불확실하지만, 그는 네오 파시스트(neofascist)와 같은 레토릭인 국가(nation)로서의 미국(America)을 강조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포퓰리스트들의 운동은 좌파에서도 우파에서도 혹은 중도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그들은 평등주의자가 될 수도 있고 권위주의자가 될 수도 있으며, 포괄적일 수도, 배타적일 수도 있다. 진보적일 수도 있으며, 과거의 미화된 영광에 집착할 수도 있다. 그들은 어떻게 “보통 사람들”을 정의하느냐에 따라 차별 시스템을 강화시킬 수도 있고,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다.^Ⅳ 트럼프로 대표되는 미국의 우익 포퓰리스트들은 반 엘리트주의를 둘러싸고 “보통 사람들(the people)”인 “백인(white)”이 중심이 되어 “국가(America)의 번영”을 다시 한 번 만들어내기 위해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운동으로 동원시키는 한 방법으로 활용하였다.

트럼프는 “보통 사람들”에게 대중영합주의적인 레토릭을 주로 사용한다. 일명 트럼피즘(Trumpisim)이라고도 불리는 이 용어는 공화당 후보로 지명된 트럼

	MAY		MARCH		DIFF.	
	Clinton	Trump	Clinton	Trump	Clinton	Trump
ALL	44%	46	50	41	-6	+5
MEN	34	56	43	48	-9	+8
WOMEN	52	38	56	35	-4	+3
WHITES	33	57	40	49	-7	+8
NONWHITES	69	21	73	19	-4	+2
18-29	45	42	64	25	-19	+17
30-39	50	35	54	37	-4	+2
40-49	40	48	43	48	-3	0
50-64	42	50	47	45	-5	+5
65+	46	49	45	44	+1	+5
NO DEGREE	38	52	45	45	-7	+7
COLLEGE GRADS	54	38	58	32	-4	+6
DEMOCRAT	86	11	86	9	0	+2
INDEPENDENT	35	48	48	39	-13	+9
REPUBLICAN	8	85	14	75	-6	+10
LIBERALS	69	24	77	16	-8	+8
MODERATES	49	39	61	27	-12	+12
CONSERVATIVES	18	74	23	69	-5	+5
WHITE:						
COLLEGE GRAD. MEN	33	59	42	47	-9	+12
COLLEGE GRAD. WOMEN	57	33	60	29	-3	+4
NO DEGREE MEN	14	76	26	65	-12	+11
NO DEGREE WOMEN	33	56	39	50	-6	+6
DEM. PRIMARY SUPPORT:						
SUPPORT CLINTON	90	8	98	2	-8	+6
SUPPORT SANDERS	71	20	77	10	-6	+10
REP. PRIMARY SUPPORT:						
TRUMP	0	99	4	96	-4	+3
NOT TRUMP	11	78	20	67	-9	+11
OBAMA VOTERS	76	15	NA	NA	NA	NA
ROMNEY VOTERS	6	86	NA	NA	NA	NA

<http://abcnews.go.com/Politics/post-primary-rally-boosts-trump-albeit-challenges-aplenty/story?id=39265102>

프의 매너, 행동, 생각하는 방식, 선거를 지휘하는 방식 등을 묘사하기 위해서 tv 해설자나 전문가들 사이에서 사용하기 시작했다. 트럼프즘은 전통적인 미국의 보수주의로부터 떨어진 공화당 입후보자들과 유례없이 독특한 미국인들의 정치적 동향이라고 설명하기도 한다. 이 트럼프즘은 유명인사, 자문화 보호주의, 그리고 아웃사이드 현상, 그리고 포퓰리즘으로 대표될 수 있다.^v

● 트럼프 현상으로 나타난 미국사회의 분열

트럼프의 지지자들은 최근 미국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 특히 경제상황의 악화 그리고 이것을 해소할 수 없는 정치의 행보에 강한 불만과 분노를 가지고 있으며, 자신들은 누구에게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 또한 현재 국정을 맡고 있다고 생각되는 이른바 지배 계층으로 대표되는 엘리트나 주류 언론에 대한 반감도 매우 강하다. 또한 인구동태의 변화에 의해 백인이 오히려 소수집단화 될 수 있다는 우려와 불안감도 아주 강하다. 즉 트럼프 지지층은 소수민족 인종 집단 (특히 흑인), 이민, 외국인, 그리고 공화당의 기존의 기성 권력 지도부에 강한 불만과 반감을 품게 된 것이 위와 같은 이유이다. 또한 관심 있는 주요 이슈가 아래의 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테러, 이민, 세금, 경제 등이 주요한 문제임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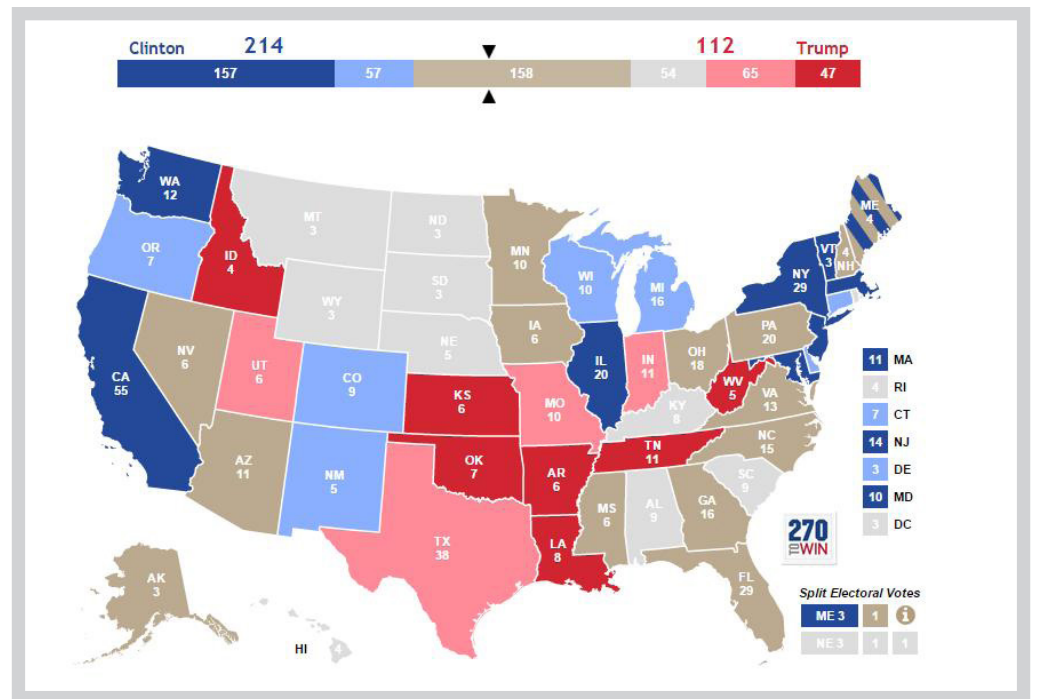
ATTRIBUTES AND ISSUES					
■ Clinton ■ Trump					
ATTRIBUTES:	ALL ADULTS			REGISTERED VOTERS	
			DIFF		DIFF
EXPERIENCE	67%	24	+43	65	+39
TEMPERAMENT	61	31	+30	59	+26
REALISTIC POLICIES	58	31	+31	57	+23
UNSTADS. YOUR PROBS.	47	36	+32	44	+5
REPS. YOUR VALUES	48	37	+33	44	+4
COUNTRY SAFER	47	44	+34	46	-1
HONEST/TRUSTWORTHY	42	40	+35	41	-1
STRONG LEADER	46	47	+36	45	-4
BRING NEEDED CHANGE	42	48	+37	39	-14
ISSUES:					
WOMEN'S ISSUES	66	23	+43	62	+35
INT'L CRISIS	55	36	+19	54	+17
INT'L RELATIONS	56	33	+23	52	+15
MIDDLE CLASS	52	35	+17	50	+14
IMMIGRATION	51	42	+9	50	+6
TERRORISM	47	44	+3	47	+1
ETHICS IN GOV'T	48	39	+9	42	-1
ECONOMY	47	46	+1	45	-3
TRADE	47	44	+3	42	-7
TAXES	42	47	-5	38	-13

SOURCE: ABC News / Washington Poll

abc NEWS

<http://abcnews.go.com/Politics/post-primary-rally-boosts-trump-albeit-challenges-aplenty/story?id=39265102>

아래의 지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미국의 경우 고등교육을 받고 글로벌 경제와 관련되어 다양하고 국제적인 대도시 지역과 오래되고 교육수준이 낮으며, 글로벌화에 혜택을 받지 못한 초기 산업도시의 지역 사이에는 이미 유권자 분열이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다. 다만 미국과 유럽의 다른 점은 소위 말하는 세속주의에 반대하는 종교적인 우파가 대립해온 문화 전쟁이 상대적으로 세속적인 유럽에서는 없었다. 미국은 이미 동성결혼, 총기소지, 기후변화, 낙태에 반대하는 시민의 권리가 전통적으로 이미 전부터 존재해왔고, 민주당에 그 지지기반을 두고 있다. 이러한 세속적인 이슈들에 대한 논쟁은 지역적 배경을 두고 미국에 있어서의 우익 포퓰리즘에 대한 지지기반의 확산에 보다 적극적인 동기가 되었다.



<http://www.270towin.com/>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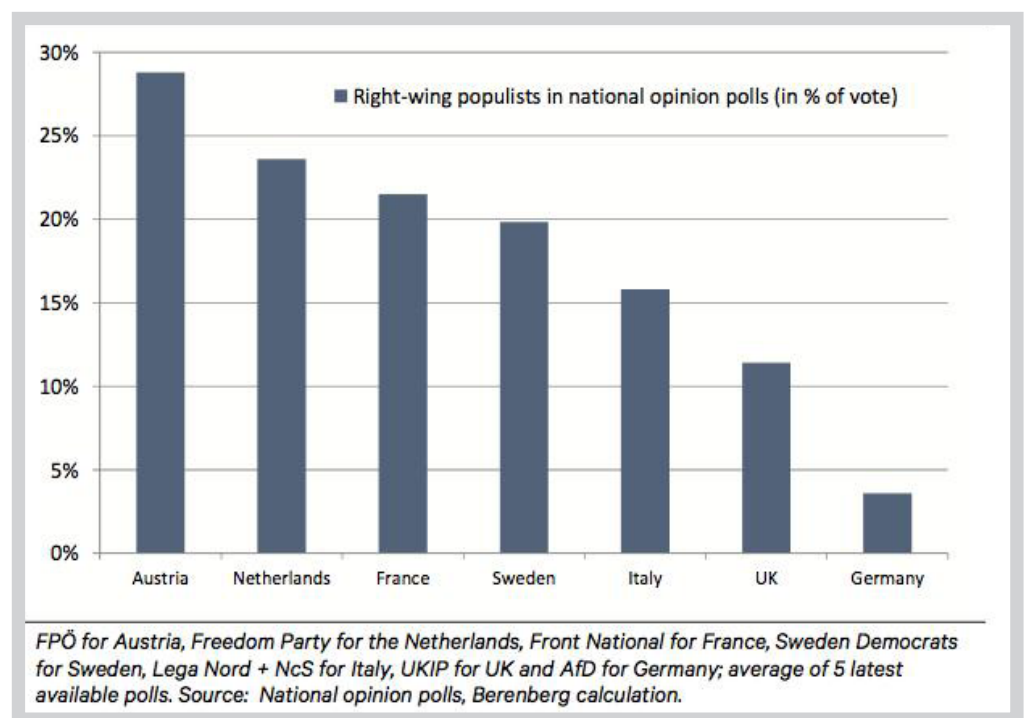
유럽의 우익 포퓰리즘과
독일의 변화

● 유럽에 부는 우익 포퓰리즘 바람

1990년대에 들어서 우익 포퓰리즘 정당이 유럽의 곳곳에서 생겨나기 시작했다. 우익 포퓰리스트들은 반드시 극단주의자들은 아니고, 극단주의자들 역시 반드시 포퓰리스트들은 아니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 극단주의는 포퓰리즘을 채택할 확률이 더 높다. 국민의 자민족중심주의에 대한 개념이 더 강해지고, 이민자에 반대하는 외국인 혐오가 강화될수록 민주적인 정부 시스템을 전복시킬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됨에 따라 우익 포퓰리스트들이 극단주의자들이 되어간다고 볼 수 있다. 많은 우익 포퓰리스트 정당들의 극단주의는 그들의 계획에 따른 유연성이 유럽에 걸쳐 있는 나타나고 있는 극우정당의 확산이 그 증거가 된다.

미국과는 다르게 유럽의 경우 우익 포퓰리즘이 정당활동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주요한 특징으로 있다. 과거만 하더라도 제도권 정치에 편승할 수 없었던 우익 포퓰리즘 정당들이 현재는 유럽의 대다수의 나라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영국의 브렉시트를 주도하고, 2014년 유럽연합 선거에서 27.5%의 정당득표를 올리며 가장 강력한 영국 정당이 된 UK Independence Party (영국 독립당), 최근 네덜란드에서 가장 강력한 정당으로 떠오르고 있는 Party for Freedom(PW), 덴마크 의회에서 두 번째로 가장 강력한 정당인 The Danish People's Party, 2013년 이후부터 정부를 구성하는 정당이 된 노르웨이의 The Progress Party, 강력한 우익 레토릭으로 지역 선거에서 두각을 드러낸 프랑스의 The Front National 정당은 2012년 당수인 Marine Le Pen이 4월 22일 열린 대통령 선거에서 총 득표율 3위를 차지하기도 하였다. 이탈리아의 The Northern League 정당은 선거를 통하여 의회에서 세 번째로 영향력이 있는 정당이 되었다. 폴란드의 The Law and Justice Party 는 2015년 9월부터 내각을 구성하는 절대 다수파가 되었다. 벨기에의 분리주의자들로 구성된 Flemish Interestsms 정당은 최근 의회에서 3석을 확보하였다. 스위스의 The Swiss People's Party는

1999년부터 의회에서 가장 강력한 정당이 되었고 현재 전체 의석의 1/3을 차지하고 있다. 오스트리아의 경우 선거를 통해 The Freedom Party of Austria 는 현재 전체 총 34%의 지지율을 확보하며 의회에서 가장 강력한 정당이 되었다. 스웨덴의 경우 The Sweden Democrats 정당은 현재 18%의 득표를 올리며 의회에서 3번째라 강력한 정당이 되었다. 핀란드의 경우 The Finns Party 는 중간 우파의 연합체의 구성원이 되었다.^{vi} 독일의 경우 The Alternative for Germany는 12%의 정당 득표율을 차지하며 독일의 일부 지역에서 의석을 획득하고 있으며 앞으로 두 자릿수 이상의 의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헝가리의 경우 현재 총리인 빅토르 오르반 (Viktor Orbán)이 이끄는 Fidez 정당은 의회에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헝가리에서도 가장 극단적인 우익으로 불리우는 Jobbik 이 이끄는 정당은 현재 세 번째로 강력한 정당으로 존재하고 있다.



(Right-Wing Populism: A Threat to the Cohesion of Europe?, 2015. 09.08 <http://www.theglobalist.com/right-wing-populism-immigration-europe/>)

● 독일의 변화: 우익 포퓰리즘의 확산

유럽국가들 중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국가는 바로 독일이다. 독일의 경우 한국과 마찬가지로 분단의 상황을 겪었고 통일을 통해 지금의 번영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미 세계 제 1차대전의 발발을 통해 극단주의적인 우익사상과 국가주의적, 자민족 중심주의의 위험성을 가장 직접적으로 경험한 나라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독일에서 우익 포퓰리즘이 확산되어 가는 배경은 무엇일까? 독일의 사례에 대한 분석은 EU에 확산되어 가고 있는 우익 포퓰리즘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유엔난민기구 발표에 의하면 2015년 작년 한해 해상으로 유럽으로 유입된 난민은 약 100만명을 돌파하였다. 난민의 유입이 멈추지 않고 있는 유럽에서는 지난 해 11월 파리에서 발생한 연속폭탄 테러사건과 쾰른에서 발생한 집단 성폭행 사건으로 인해 난민을 향한 시선이 크게 변하였다. 난민정책에 대한 서구나 북유럽 국가의 우익정당을 결과적으로 약진시키고, 난민이나 이민자에 대한 반대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로 인한 유럽에서의 극우정당의 대두가 현저해지고 그 중에서도 그 세력의 확산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던 독일에서도 이제 “페기다(PEGIDA)”와 같은 극우집단 주도의 매주 월요일 개최되는 데모가 주목을 받고 있다. 이와 더불어 독일의 극우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AfD)”인 우익정당이 지방의회를 시작으로 의석을 얻고 있고 있어 독일에서도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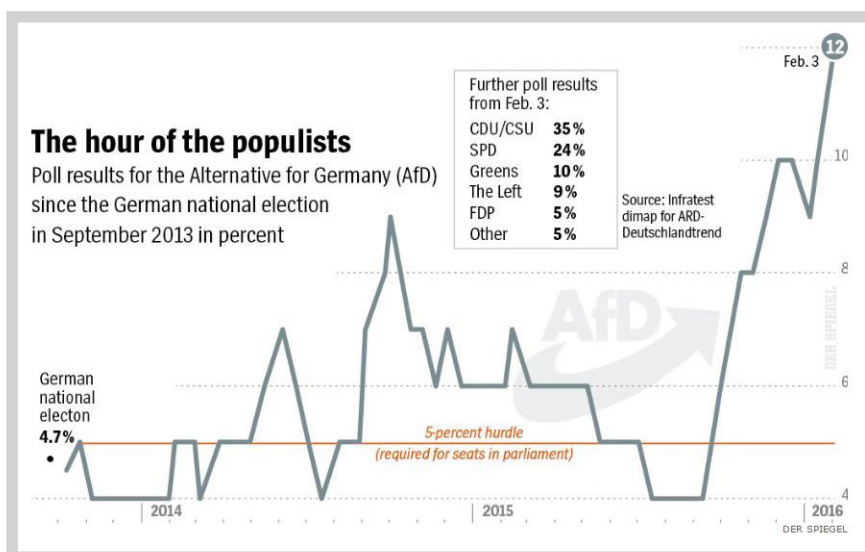
과거의 극우가 나치즘에 입각한 네오나치(Neo Nazi) 이념이 강했지만, 현대에 들어서 나치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보다 확대되면서 정통 보수주의의 계통에 입각한 우익 활동이 주류가 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극단주의적인 극우 요소를 포함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최근 독일에 도착한 난민에 대한 공격 등 인종차별적인 폭력사건급증의 배후로 이 국가민주당(NPD)를 치안당국은 지목하고 있다. 헌법문제에 관한 최고사법기관으로 있는 독일헌법재판소는 독일의 연방참의원(독일의 각 주 대표로 구성)에 의한 NPD비합법화 청구에 대해 2016년 3월 1일 극우정당인 국가민주당(NPD)를 비합법화하는 기소에 대한 법리 해석이 최근 개시되기도 하였다.

● 새로운 형태의 우익 정당의 등장; 독일을 위한 대안(Alternative für Deutschla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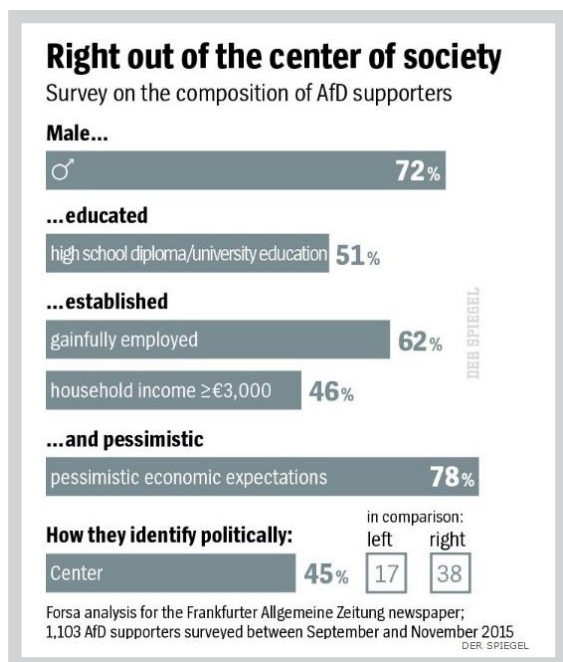
2014년 10월부터 독일에서는 “이슬람화”에 반대하는 데모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독일의 우익집단의 공통적인 주장은 독일의 기존의 매스미디어(mass media)에 대한 불신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현 정부의 난민정책, EU 정책에 반대가 그 핵심이다. 독일의 우익정당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우익 운동이 엘리트 집단에 의해 주도된다는 사실이다. 독일의 우익 포퓰리즘의 핵심 첫 번째 중 하나이며 현재 독일의 대표적인 우익정당인 2013년 결성된 독일을 위한 대안(Alternative für Deutschland), 약칭 AfD 정당이다. 이 정당은 메르켈 정권에 의한 그리스 및 유럽연합국으로의 구제조치에 대한 반발한(anti-euro movement) 교수를 비롯한 지식인 세력이 중심이 되어, 2013년 2월 6일에 베를린에서 설립되었다. 한 마디로 반 메르켈, 반 이민자, 반 미디어, 반 유로, 반 이슬람 정당이다. 유럽연합에서의 탈퇴를 목표로, 유로권에서의 이탈과 독일 마르크의 부활을 당면의 최우선 과제로 들고 나왔다. 당의 정책은 전체적으로 우파색이 강하지만, 국수주의나 이민배척은 내세우지 않았다. 2014년 유럽의회의원선거에서 처음으로 의원을 당선시켰다. 당 결성 후 2개월 뒤에 열린 전당 대회에 1500여명이 참가하는 등 설립초기부터 많은 주목을 받았지만, 2013년 9월 연방 의회 선거에서는 저지조항(득표율 5%)을 밑도는 의석밖에 얻지 못했다. 그러나 연립여당인 자유민주당(FDP)에 육박하는 득표율 4.7%를 기록하여 일정한 존재감을 보여주었다. 또한 AfD는 FDP의 지지기반의 표를 가져온 효과를 불러와 FDP역시 득표율

4.8%로 저지조항을 밑도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에 따라 FDP는 1948년 당 설립 이후 계속 지켜온 연방의회 의석을 잃었다. 왼쪽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우익 포퓰리스트들에 대한 지지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아이러니 하게도 자유방임주의적 자유주의와 반 엘리트주의에 입각한 우익정당인 AfD는 초기에는 교수들의 정당이라는 평판이 강했다. 또한 보수적이면서 신자유주의적인 성격을 많이 띠었다. 독일을 위한 선택 사



(<http://www.spiegel.de/international/europe/bild-1076259-955055.html>)



<http://www.spiegel.de/international/europe/bild-1076259-955053.html>

향(AfD)은 2014년 10월에 옛 동독 작센 주의 주도(州都) 드레스덴에 등장한 페기다(Pegida)의 약칭을 가진 서양의 이슬람화에 반대하는 유럽 애국자 운동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사실상 AfD당원과 지지자들이 드레스덴에서 페기다와 함께 활동했다.

독일의 가장 영향력 있는 권위지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 FAZ)이 2015년 9월과 11월 사이에 AfD의 지지자 110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즉 독일 내 우익 포퓰리즘을 지지하는 세력을 분석해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남성이 조사 전체 지지자의 72%를 차지하고 있으며, 고등학교 혹은 대학교 이상의 학력 수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절반 이상이 되었다. 또한 현재 62%가 직업을 가지고 있으며, 한달 가족 수입이 3,000유로 이상이라고 밝힌 사람이 46%나 되었다. 또한 자

신들의 정치적 성향을 중도라고 밝힌 사람이 45%에 달하고 우파라고 밝힌 사람이 35%였다. 위의 결과를 보면 독일인들의 정치적 스펙트럼이 보수적인 대안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정치 체제에 대한 반대와 저항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확인 될 수 있는 것이다.

● “서양의 이슬람화에 반대하는 유럽 애국자(PEGIDA)” 운동의 등장

독일 우익 포퓰리즘의 핵심 두 번째는 바로 “서양의 이슬람화에 반대하는 유럽 애국자” 혹은 “서구의 이슬람화에 반대하는 유럽 애국주의자”인 PEGIDA(Patriotische Europäer gegen die Islamisierung des Abendlandes) 운동이다. 페기다(PEGIDA)는 2014년 10월 20일 독일에서 데모를 시작으로 서구권에 걸친 이슬람의 폭력적인 활동을 제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치단체를 목표로 활동을 전개해가고 있다. 2014년 10월 27일 작센 주(Sachsen) 드레스덴(Dresden) 시내에서 2차례의 시위를 일으키며 500명의 시위자를 모아 일약 독일 국내의 주목을 받았다. 이후 매주 월요일 18:30부터 데모가 아니라 『밤의 산책』이라 부르며 시가 행진을 하였고, 2014년 12월 22일에는 무려 17,500명이 모이기도 하였다. 페기다는 사실 시가행진 외의 구체적인 활동은 눈에 띄지 않



<http://www.euronews.com/2015/01/05/pegida-darkens-immigration-climate-in-germany/>

며, 홍보 활동도 인터넷상에서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를 개설한 것 이외에는 실질적으로 이민자 혹은 난민자를 대상으로 한 배격 혹은 박해에 이르는 적극적인 행동은 보이지 않았다.

당시 처음 개최된 시위를 대상으로 드레스덴 공대(The Technische Universität Dresden)의 정치학 연구자 한스 포렌더 (Hans Vorländer)가 드레스덴에서 2014년 12월과 2015년 1월에 총 3번에 걸쳐 시위에 참여한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참가자의 65%는 응답을 거부했고, 약 40%에 달하는 400여명의 참가자로부터 응답을 얻은 결과) 대다수를 이루는 참가자 층은 작센 주의 평균 수입을 다소 웃도는, 중산층 계급의, 일반적인 상급 교육을 받은 취업자로서, 48세의 남성이라고 발표하였다. 시위 참가자들은 어떤 종교단체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고, 드레스덴 혹은 작센 주 출신으로 특정 지지 정당은 없다고 밝혔다. 참가자의 동기로는 전반적인 정치불신이 압도적이었으며, 다음으로는 보도와 공정성에 대한 비판, 그리고 이슬람을 전제로 한 이민, 난민을 향한 기본적인 불신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Ⅷ 앞서 언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독일에서의 우익 포퓰리즘의 지지층은 중산층 이상의 남성이라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할 수 있다.

페기다(PEGIDA)는 독일 국내 여러 도시에 있어 연대 혹은 유사한 활동 단체와도 연대활동을 전개해 나갔고, 주요 이슈와 주장이 독일의 다른 마을과 지방으로 확산되면서 순식간에 독일의 주요한 정치 논쟁의 중심에 놓이게 되었다. 페기다의 주요 핵심은 실업이나 고용 불안정, 높아져 가는 사회적 불평등과 생존에 관한 자연기반의 파괴 등이 주요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무슬림, 즉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을 동반한 이민, 난민자들에 의해 독일이 몰락하게 될 지도 모른다는 우려에서

시작되었다.

페기다의 주요 강령 중 몇 가지를 살펴보면 합리적인 대안과 방법들을 쉽게 찾을 수 있다. 부분적으로 이들은 난민에게 인도적으로 거주를 보장하고, 그들에 의한 많은 소셜 워커(Social Worker)를 충당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리고 독일에 살면서 충분히 동화된 무슬림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항목도 시위에서의 페기다의 발언자들에 의해 확실하게 강조되고 있는 점은 다른 데 있다. 그것은 바로 외국인 자신이 독일에 동화할 의무, 그리고 난민의 EU내부에서의 보다 공평한 배치, 또한 그들을 감시하기 위한 경찰에 대한 더 많은 재정지원과, 망명법의 일관된 적용, 범죄를 저지른 난민 신청자나 이민자에 대한 추방 및 무관용, 그리고 서구의 기독교 문화의 보호와 방위, 그리고 젠더 이념의 주류화로의 반대나 정치적 언어의 강제 등이 내포되어 있다.

● 독일 내 우익활동의 과격성 증가

2016년 발표된 2015 연례 범죄보고서¹⁰⁰에 따르면 독일의 난민 시설에 대한 공격이 전년 대비 5배 이상으로 늘어나는 등, 작년 한해 우익 과격파에 의한 범죄 건수가 사상 최고치에 달했다고 밝혔다. 2015년 독일 연례 범죄 보고서에 따르면 극우 성향의 정치적 동기를 가진 범죄가 35% 급증하여, 2001년 조사 시작 이래 최고인 2만 3000건에 달했다고 발표했다.

“정치적 동기를 동반 한 범죄의 급증은 사회의 위험 증대를 시사하고 있다”고 독일 내무 장관은 의견을 밝히기도 하였다. 습격이나 살인 등 폭력 범죄 건수는 우익 습격이 44% 급증하였고, 전체적으로는 31% 증가했다. 난민 임시 수용 시설에 대한 공격은 전년의 199건에서 1031건으로 급증, 그 중 923건은 극우집단과 관련되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좌익 폭력 범죄 건수도 35% 증가했다. 내무 장관은 올해 1분기 만에 난민 시설 습격이 이미 347건에 달했다 것을 생각하면 범죄 건수는 올해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독일에서의 우익활동은 과격성이 증가하고 범죄로 이어지는 경향이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5

결론 : 함의와 시사점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미국과, 독일 그리고 유럽의 우익 포퓰리즘은 현재 중요한 이슈이며 당면하고 있는 국민 분열의 주요 과제이다. 세계화와 글로벌화가 만들어진 현대 정치, 사회적 환경의 결과라고 보기에는 너무 극단적인 측면이 내포되어 있음을 부인 할 수 없다.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 속에서 한국은 매우 독특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이나 유럽, 독일의 경우와 다르게 한국에 있어서의 우익 포퓰리즘은 “반공주의”, “종북세력척결”이라는 이데올로기적 분열을 가장 큰 특징으로 두고 있다. 과거 “새마을운동중앙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으로 대표되는 관변단체가 주로 우익 성격을 띠는 단체로서, “친 정부주의적”, “반공주의적” 활동을 펼쳐왔다. 이들 그룹은 포퓰리즘의 핵심적인 성격인 대중의 의지(이익)을 정치적 정당화로 연결 짓기보다는 국가와 민족을 강조하며, 기존의 확대되는 복지국가로의 흐름에 반대하여 보수주의나 시장자유주의에 대한 논의보다는 북한에 대한 반감을 기반으로 친 정부의 입장에서 자국 내에서의 친북세력척결과 반공주의의 강화를 주요활동으로 해왔다.

근래에 들어 온라인 상에 등장한 “일베”는 앞서 언급한 활동과는 조금 다르게 대중의 이데올로기적 견해를 여과 없이 보여주는 하나의 집단이 되었다. 이들은 사회적 약자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적 장치에 대해 비판적이며, 일베에서 논의되는 게시물들의 대다수는 주로 특정지역출신, 과거사, 여성, 외국인 노동자, 이주여성, 진보세력 등에 대한 왜곡과 원색적 비난이다. 이용자들의 다수는 남성이다. 물론 “일베”에서도 국가와 민족(여기서의 민족은 남한을 의미)을 강조하는 반공주의(종북)를 통해 국가주의적 요소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여성,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혐오와 차별 발언을 통해 민족중심주의적 요소를 확인할 수는 있지만, 명확하게 특정 이데올로기를 내포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최근에 페이스북에 개설된 자유주의-Liberalism 웹진 이라든지, 전국경제인연합회 관련 회원사들의 출원금으로 설립된 비영리재단인 자유경제원, 뉴라이트(new right)집단 등은 자유주의적 이데올로기에 입각하여 시장경제 중심의 경제

체제를 옹호하는데 주요한 목표를 두고 있다. 또한 국가주의적 요소로 북한에 대해 적대적이지만, 이데올로기로서 자유시장경제체제인 미국과 일본에 우호적이다. 이들은 우익 포퓰리즘이 일종의 복시 소비니즘과 동일시 되는 미국과 유럽의 사례와는 다르게 과도한 복지에 대해 보수적인 태도를 취한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보수주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무엇보다 위의 집단을 중요한 우익 포퓰리즘의 형태로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는 점이다. 자유경제원이나, 뉴라이트집단에서 활동해온 사람들이 최근 새누리당에 입당하여 비례 대표 혹은 선출직 의원으로 당선된 사례를 통해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한국의 우익 포퓰리즘의 경우 미국이나 유럽과는 달리 기존의 체제에 대한 변혁을 꿈꾸지 않으며, “보통 사람들(the people)”을 강조하며, 반엘리트주의를 내세우지도 않는다. 오히려 기존의 체제에 지속적인 개혁과 변화를 요구하는 진보진영을 비판하며, 북한에 대한 남한의 입장을 강조하는데 주력한다.

국경을 넘어서 불고 있는 이러한 극단적인 우익 포퓰리즘에 대하여 새로운 정치적 이데올로기의 등장이 가능할 것인 지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와 학자들이 아직까지는 의문을 표하고 있다. 우익 포퓰리즘이 기존의 주요 정당들을 약화시킬지 아니면 강화시킬지 역시 아직은 판단할 수 없다. 그러나 극단적인 이데올로기와 무조건적인 대중의 강조는 위험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다. 각각의 나라들은 역사적, 문화적 특이성을 가지고 극단주의적 우익 포퓰리즘에 대항하는 기회구조를 만들어내야 함은 분명할 것이다. 규제 없는 국제화의 과정에 대한 변화와, 글로벌 경제 체제에서의 사회적 및 생태학적인 규제 방법을 통해 국가와 산업 불균등을 변화시켜야 한다. 특히 한국의 경우 이데올로기적 갈등 요소를 극복하지 않으면 선동과 분열은 피할 수 없으며 극한 대립을 강화시킬 뿐이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건 합리적인 판단과 보다 폭넓은 이해를 통해 혐오를 배격하고 관용을 확산시키는 시민 개개인의 노력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
- I <https://www.trendmonitor.co.kr/tmweb/trend/allTrend/detail.do?bldx=1476&code=0401&trendType=CKOREA>
- II The New Politics of the Right: Neo-Populist Parties and Movements in Established Democracies, Hans-Georg Betz & Stefan Immerfall, Palgrave Macmillan: 1998 edition (May 15, 1998)
- III Neil Irwin and Josh Katz, "The 2016 Race: The Geography of Trumpism," The New York Times, March 12, 2016 (http://www.nytimes.com/2016/03/13/upshot/the-geography-of-trumpism.html?_r=0)
- IV Chip Berlet and Matthew Nemiroff Lyons, Right-Wing Populism in America: Too Close for Comfort (New York: Guilford Press, 2000) <http://www.rightwingpopulism.us/>. – See more at: http://www.politicalresearch.org/2015/12/12/trumping-democracy-right-wing-populism-fascism-and-the-case-for-action/#_edn32
- V LYDIA TOMKIW, "What Is Trumpism? Presidential Election And Republican Donald Trump Give Rise To New Political Term", International Business Times, 2016.07.28 <http://www.ibtimes.com/what-trumpism-presidential-election-republican-donald-trump-give-rise-new-political-2395546>
- VI The Hate Preachers: Inside Germany's Dangerous New Populist Party, 2016.02.10 <http://www.spiegel.de/international/europe/bild-1076259-956276.html>
- VII Pegida-Anhänger sind gebildet und verdienen gut, 2014.01.14, <http://www.welt.de/politik/deutschland/article136366982/Pegida-Anhaenger-sind-gebildet-und-verdienen-gut.html>
- VIII Police Crime Statistics 2015, Bundesministerium des Innern, Federal Ministry of the Interior, DIE WELT https://www.bmi.bund.de/SharedDocs/Downloads/DE/Nachrichten/Pressemitteilungen/2016/05/pks-2015-flyer-engl.pdf?__blob=publicationFile

Reference

THOMAS GREVEN "The Rise of Right-wing Populism in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A Comparative Perspective", Perspective May 2016, FRIEDRICH EBERT STIFTUNG.

Rise of right-wing populist threat in Europe can only be tackled by greater EU co-operation, says German philosopher, 2016.07.13 <http://www.independent.co.uk/news/world/europe/german-philosopher-jurgen-habermas-right-wing-populist-parties-grow-eu-integrates-brexite-a7132936.html>

우익 포퓰리즘 (Right wing Populism)의 전 세계적 확산

KDF REPORT : Issue & Review on Democracy

발행일 2016년 8월 10일

발행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KDF, Korea Democracy Foundation)

한국민주주의연구소 (IKD, Institute for Korean Democracy)

edit@kdemo.or.kr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빌딩 A동 6층

이 책자의 내용은 본 연구소의 공식견해가 아님

본 연구소의 승인없이 전재 및 인용을 금함

